

한·폴란드 경제인 초청 오찬연설

존경하는 알렉산더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 각하,

아렌다르스키 회장과 박용성 회장, 그리고 양국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바르샤바 왕궁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수교 이후 처음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인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쿼리 부인과 같은 위대한 폴란드인의 전기와 쇼팽의 음악을 접하며 자랐습니다. 이곳에 와 보니 그러한 폴란드인의 열정과 높은 자긍심이 경제발전의 에너지로 승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바르샤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폴란드의 내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한국과 폴란드 관계는 1989년 수교 이후 1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양국간 교역은 1997년 최고액을 기록하고 잠시 주춤

하기도 했지만, 200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바뀌어서 올해는 1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의 투자도 매우 활발합니다. 폴란드는 중·동유럽 지역에서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며, 분야도 자동차·전자·화학 등 다양합니다. 한국 기업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폴란드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경제인 여러분,

폴란드와 한국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많은 역사적 부침을 겪어 왔습니다. 도전에 잘 대응했을 때는 지역평화와 번영에 기여했지만, 그렇지 못한 때에는 주변 강대국의 각축으로 수난의 역사를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양국은 세계화와 지역협력이라는 서로 상반된 흐름 앞에서 다시 한번 도전과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EU 가입을 계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서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 중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경제규모,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경제정책 등 많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서 유럽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장래를 내다보고 유럽 다른 지역의 공장을 이곳으로 이전한 우리 기업도 있습니다.

한국 역시 동북아 경제중심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이점과 잘 구비된 IT·물류 기반을 활용해서 동북아 지역의 금융과 물류, 첨단 산업 허브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부유럽과 동북아 경제중심이 될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고, 나아가 지역안정과 세계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우리 두 나라가 유라시아 대륙을 동서로 잇는 출발점과 종착점이 되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양국 경제인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 각하와 어제 만나서 양국 경제의 잠재력과 상호보완성을 감안할 때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우선,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초과학 역량과 전자·자동차·IT 산업 등에서의 한국 기술력이 합해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건설현장에서 축적해 온 우리 기업의 경험과 기술도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체결된 '경제협력협정'도 양국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

우리 두 나라 국민은 숭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주와 민족자존을 지켜 왔습니다. 전쟁의 잣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내고, '비스와강의 기적'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높은 교육열과 강한 도전정신도 양국 국민의 공통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자산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는 동력으로 살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 앞장서 주셔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네 차례의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에는 상공회의소 간에, 어제는 전경련과 폴란드 경제인연합회 간에 협력의정서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의 방문이,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협력을 더욱 폭넓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